# 美 경제 '깜깜이'…최장기 셧다운 통계당국 마비 후유증

고용·물가 등 지표 지연·공백···"건전성에 전례없는 사각지대"

"정상화 몇달 걸릴 수도"…기준금리·기업 고용·투자까지 충격파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가 연방정부 셧다운(일 시적 업무정지)의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는 우 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가 지연되거나 영구적으 로 누락돼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부터 기업의 고 용,투자 결정까지 광범위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15일 (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미 국 노동통계국(BLS), 경제분석국(BEA), 인구 조사국 등은 셧다운 기간에 데이터를 수집해 발 표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현재 건설·무역에서부터 국내총생 산(GDP), 재고에 이르기까지 30건이 넘는 공식 보고서가 누락된 상태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산 삭감, 인 력 감축에 정치색 논란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던 미국 통계기관들에 43일에 걸친 역대 최장의 셧 다운은 큰 부담이 됐다.

셧다운 종료와 함께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 면서 뒤늦게라도 발표되는 보고서도 있겠지만 일부 데이터는 아예 폐기돼 주요 지표에 공백이

원래 10월3일 발표 예정이었던 BLS의 9월 고 용보고서는 오는 20일이라도 나오지만, 지난 7일 로 잡혀있던 10월 고용보고서의 발표 일정은 아 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보고서들도 정리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 다. 셧다운 기간 직원들의 무급휴직으로 10월 보 고서에 필요한 자료들이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

BLS는 "상황을 완전히 평가하고 수정된 발표 날짜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 혔고, BEA는 아직 발표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

백악관 대변인은 10월 물가, 고용 지표가 영원

히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0월 고용시장 관련 일부 데이터는 대부분 기 업이 자체 기록을 BLS에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업률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계 조사 는 전화 설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소비자 물가는 더 문제다.

일부 가격 정보는 웹사이트 자동 추출 방식이 나 민간 정보업체를 통해 얻지만, 3분의 2정도는 직접 매장 방문을 통해 수집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원칙이다.

셧다운 때문에 현장 조사가 누락된 10월 소 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다.

경제 전문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 은 사태를 두고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전례 없는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데이터 부족은 당장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통화정책수립에상당한영향을 미칠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 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할 것 이라는 관측을 두고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말했

파월 의장은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는 어떻 게 하는가? 속도를 늦춘다"고 말해 데이터 부족 에 따라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 튀르키예 길거리 음식 먹은 관광객 3명 사망

#### 같은 호텔 묵은 2명도 입원…수사 확대

튀르키예에서 관광객 가족 3명이 길거리 음 식등을 먹은 뒤 사망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자 노점 상인과숙박업소관계자등을 줄줄이 체포했다.

15일 (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 탄불을 여행 중이던 독일인 부부와 자녀 2명이 지난 11일 메스꺼움과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 상으로 입원했다.

어머니와 6세 아들, 3세 딸은 병원에서 숨졌 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하기 전 튀르키예식 곱창인 코코 레치와 홍합밥 미디예돌마, 전통과자 로쿰, 수 프, 닭고기 요리 등을 먹었다.

이 가족은 튀르키예 이민자 집안 출신으로 과 감시카메라 영상 등을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스탄불 파티흐 지역의 호텔에 머물고 있

튀르키예 일간 줌후리예트는 같은 호텔에 투숙한 이탈리아와 모로코 출신 관광객도 비 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날 보도

현지 경찰은 독일인 가족에게 음식을 판 상인 4명과 이들이 머문 호텔 관계자 3명 등 모두 7명 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스탄불 당국은 식중독 사례가 평소보다 늘 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식중독을 의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나온 호텔로 수사를 확대했다.

호텔 측은 "레스토랑이 없고 물만 제공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호텔 일부 객실이 화 학약품으로 소독된 사실을 파악하고 식수 샘플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이 한창인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의 비밀 장소에 있는 국가 저항 센터에서 포괄 우크라이나 시민 훈련 적인 전술 및 특수 훈련을 받고 있다

## 인도 경찰서 폭발물 터져…7명 사망·27명 부상

인도 북부 카슈미르에 있는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폭발물이터져7명이숨지고27명이다쳤다. 15일 (현지시간) 인도 방송사 NDTV와 로이 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도령 카슈미 르 중심도시 스리나가르 외곽에 있는 노우감 경

찰서에서 폭발물이 터졌다. 이 사고로 경찰관과 법의학팀 관계자 등 7명 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부상자들 가운데 5명은 위중한 상태여서 사 망자가 더 늘 수도 있다고 NDTV는 보도했다.

조사 결과 사고는 경찰관과 법의학팀이 압수 한 폭발물을 분석하던 중 일어났으며 구체적 원

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폭발과 함께 경찰서 건물에 불이 났고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인도 뉴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 차량이 폭발해 8명 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인도 정부는 최근 이 사건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인도 경찰은 테러가 발생하기 전 뉴델리 인근 하리아나주 파리다바드에서 체포한 카슈미르 출신의사 2명 등 남성 7명을 수사하고 있다.

# 우크라, 北탄약공급 막으려 시베리아 횡단철도 폭파

#### "러, 인프라 효과적 통제 못해" 주장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탄약 공급을 끊기 위해 러시아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15일 (현지시간) 현지 언론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HUR)은 지 난 13일 러시아 동부 하바롭스크에서 발생한 대 규모 폭발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다.

HUR은 텔레그램에서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가 북한에서 조달된 무기와 탄약 공급 등에 사 용되는 철도 노선의 군수품 이동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로켓과 탄도미사 일등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FISU)은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포탄 650만발을 공급 했으며, 사실상 러시아군이 쓰는 탄약의 주요 공급국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천여km 를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동부에서 우크 라이나 전선까지 군사 물자를 공급하는 주요 경로다.

HUR은 이번 공격이 적의 물류 역량을 무너 뜨리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며, "러시아의 특 수정보기관은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조차 효과 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고 주장했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

와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시설 공격에 집중하고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 현지 전기 생산이 중단되고 각지 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 에 타격을 주기 위해 석유 저장고 등 시설 공격 을계속해서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